

天雄의 炮制에 관하여

최정현, 정병하, 성만준, 권동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Abstract

Study on The Drug Processing of Aconiti Root(天雄)

Choi Jung-Hyun, Jung Byung-Ha, Seong Man-Jun, Kwon Dong-Yeul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medicinal herbs,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Aconiti Root(AR), has been used for about 2000 years, since recorded for low grade in 'Shinnongbonchokyung(Divine Husbandman's Herbal Foundation canon)'. It also recorded for Poisonous Drug in 'Myunguibyullok', 'Yaksungron', etc, and they advised when the AR is using for clinical disease it has to be processed. There are more than 13 processing methods, in records that related 39 parts which is recorded in ancient documents. In China, there are no standard of herb that using for clinical, cause of the traditional processing methods was cut since 1960s. In these days, they are using AR that recorded in Aconiti Tuber part of the processing records, in Guangdong and Shantung. In addition, the modification of Processed Aconiti Root(PAR) is also used for goods in Hongkong, Macao, and Southeast Asia. We studied the PAR for enhancing the importance of it, and multiply using. In this study, we search for the history of processing of AR, traditional theories of processing and clinical adaptation.

교신저자 : 권 동 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Tel : 063-850-6802 E-mail : sssimi@wonkwang.ac.kr

접수 : 2004/ 5/ 30 채택 : 2004/ 6/ 2

Key Word : Aconiti Root(天雄), Poisonous Drug(有大毒한 약물), Standardization of Medicinal herbs(한약재의 표준화), Drug Processing(炮制), processed Drug(포제품), Precessed Aconiti Root(炮天雄)

I. 緒 論

附子は 약중의 聖藥이다. 附子は 急證, 危證, 重證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毒性을 가진 약물이다. 附子の 약효와 약리작용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결정과 煎煮用法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天雄의 포제와 임상 사용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홍콩 지역과 동남아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炮天雄”의 규격을 응용하지 않고 있다. 선조의 독특한 포제기술의 계승을 위해 우리들은 天雄의 포제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시하여야 한다. 고대 포제방법의 기초위에 문헌에 대한 계통적인 정리와 고증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이론과 기술방법을 더하여 전통 포제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天雄의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제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景岳全書》에 말하길¹⁸ “人蔘과 熟地黃은 치세의 양상(治世之良相)이고, 附子와 大黃은 난세의 양장(亂世之良將)”이라고 하였다. 포제법과 약성을 잘 이해하면, 기초적으로는 한약의 표준화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는 훌륭한 약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本 論

1. 天雄의 역대 포제 개황

일찍이 天雄은 《神農本草經》에¹ 성미,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만 포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漢代 《金匱要略方論》에서⁵ 天雄에 대한 “炮”의 기록이 시작되었으며, 梁代 陶弘景은 “凡湯并丸,散,用天雄,附子...皆燂灰炮炙,令微坼,消去里皮,及稱之”라⁶ 하였다. 《雷公炮炙論》의 黑附子에 天雄의 去皮臍의 淨制의 초보적인 요구가 있었다. 동시에 제일 먼저 輔料를 이용한 포제법이 출현하였는데 “以薑汁鹽水煮數沸. 又用黃連,甘草,童便合煮一時,于午地上掘坑埋一宿,取出,罔罔曬乾用”와 “凡使,先以米泔浸一宿,曬出,然後用竹葉煮,從午至亥,漉出,日乾用之”라⁷ 하였다. 唐朝에 이르러 주로 사용해 온 포법 외에 새롭게 창제한 乾薑制가⁸ 있었다.

宋代에 이르러, 이전의 포제법외에 포제가공방법, 보료사용과 제품규격화 등 다방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새롭게 焙, 煨法이 추가 되었는데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에 “凡使,先炮裂令熟去皮,臍,焙乾,方入藥”라⁹ 기록이 있었다. 또한, 《小兒衛生總微論》에는 “慢火煨存性,研”라¹⁰ 기록이 있었다. 보료제법 방면에 鹽制, 酒制, 酒醋共制가 있는데 그 중 鹽炒制시에는 그 포제법의 특별한 요구 내용이 없었

는데, 《博濟方》에서¹¹ “一分銖碎, 以鹽一分, 同炒令黃色”라 말하였다. 酒制는 酒浸과 酒煮를 포함하며, 金元시기에 와서 炮法과 鹽制法을 사용하였고 童便制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明清시기, 역대 사용해 온

포제법의 기초위에서 隔紙焙制法과 煨制法이 출현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이러한 포제방법은 天雄 포제를 연구하는 역사문헌의 근거가 되었다 (표1 참조).

표1. 역대 天雄 포제의 연혁

연 대	포 제 법		문 헌 출 처
	기존의 포제법	새로 추가된 포제법	
漢 朝		炮	金匱要略方論
梁 朝	炮(糖灰炮)		本草經集注
劉 宋	炮(糖灰炮)		雷公炮炙論
		陰制(黑豆浸)	雷公炮炙論
唐 朝	炮		千金翼方
		乾薑制	藥性論
宋 朝	炮 陰制(黑豆浸)		太平聖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焙制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
		煨制	小兒衛生總微論
		酒醋制	太平惠民和劑局方
		鹽制(焦黃)	博濟方
		酒制(酒浸)	蘇沈良方
酒制(酒煮)	聖濟總錄		
元 朝	炮		世醫得效方
	鹽制		世醫得效方
		童便制	丹溪心法
明 朝	炮		普濟方
	酒制		普濟方
	陰制(黑豆浸)		本草綱目
	酒醋制		本草綱目
		鹽酒制	普濟方
		薑汁制	普濟方
		酒童便制	普濟方
	童便甘草制	醫宗必讀	
清 朝	炮		外科大成
	陰制(黑豆浸)		修事指南
	酒醋制		修事指南
		大豆制	本草述
	煨制	玉楸藥解	

2. 炮天雄의 역사연혁

《歷代中藥炮制資料輯要》에 수재된 39部の 관련 문헌 중, 27部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炮天雄의 포제 규격 중 炮법은 역대 天雄 포제의 중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天雄은 《金匱要略方論》에서 제일 먼저 “炮”법을 기재하였고, 그 뒤 唐의 《千金翼方》, 宋의 《類編朱氏驗醫方》과 《女科百問》, 元의 《丹溪心法》, 淸의 《本草述》과 《婦女玉尺》중에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 飮片的 구체적인 요구에 있어서는 唐의 《千金翼方》, 宋의 《普濟本事方》과 《濟生方》, 明의 《奇效良方》과 《本草綱目》, 淸의 《修事指南》에서 炮去皮的 내용이 수재되어 있으며, 南北朝의 《雷公炮炙論》, 唐의 《本草拾遺》, 明의 《醫學入門》, 《本草綱目》과 《本草原始》, 淸의 《修事指南》에 炮去皮, 尖的 내용이, 宋의 《太平聖惠方》, 《類證活人書》, 《日華子本草》, 《聖濟總錄》, 《全生指述方》, 《普濟本事方》, 《鷄峯普濟方》과 《太平惠民和劑局方》에 炮去皮, 臍에 대한 기술이 있다.

금세기 30년대에는 炮天雄의 구체적인 포제 기법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 예를 들면, 陳仁山の 《藥物出產辨》에¹² “附子……又名天雄.制附子之法……名爲炮附片”라 하였고, 50년대 廣東의 대표적인 포제 문헌인 《廣東中藥研究所藥物炮制學筆記》에는¹³ 당시 醫家들이 비교적 자주 사용해 온 포제법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藥物出產辨》의 炮附子 제법과 내용이 거의 같았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포제 기법이 전승되지 못하여 현재 중국은 天雄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 天雄포제의 전통이론

고대의가들은 장기적인 임상 실천에서 얻은 지식을 집대성하였고, 후인들이 끊임 없이 발전시켜 중의약의 전통이론이 성립되었다. 중약의 포제 역시 독특한 이론을 세웠으며, 특히 天雄은 역대 모든 전통 포제이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淨制부분에서 炮去皮, 尖은 明의 《本草綱目》에서¹⁴ “天雄,皆是補下焦命門陽虛之藥,補下所以益上也...且天雄之尖,皆是向下生者,其氣下行”라고 설명하였다. 去臍 방법 역시 炮去臍, 煨去臍, 酒煮去臍, 酒醋去臍, 薑汁制去臍 등으로 나뉜다. 포제 방면에서 元의 《丹溪心法》에서¹⁵ “肥人多濕,少用烏頭,附子行經.凡用烏,附,必用腫便炙過,以殺其毒”이라 하였다. 따라서 문헌기록 중 天雄 대부분이 去皮尖, 去臍와 火炮制가 많다. 淨制나 보료를 사용한 제법이나 火制는 모두 天雄의 독성을 경감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4. 天雄炮제품의 임상응용

역대 의학문헌의 天雄에 대한 기재를 보면 溫陽, 扶正과 止痛作用이 있어서 虛證과 緩證에 사용되어 왔다. 《神農本草經》에¹ “天雄은 맛이 辛溫하고, 大風, 寒濕痺, 歷節痛, 拘攣緩急, 破積聚邪氣, 金瘡, 強健骨, 輕身健行한다”고 하였다. 唐朝 이전 소수의 의가들이 습관적으로 生用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陶弘景은 “惟薑附湯及膏酒中生用(天雄)”라 하였고, 《日華子本草》에서도 “飮藥和皮生使(天雄),甚佳”라 하였고, 《外臺秘要》에는¹⁶ 《深師方》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 天雄은 生用(예, 三兩去皮生用)시에 그 大毒함을 알았으며, 후대에는 거의 炮熟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편, 唐의 《日華子本草》에는 “天雄治一切風”라 하였고, 宋의 《本草衍義》에 “風家多用天雄”라고 기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 풍증 치료로 炮天雄이 《普濟方》에 君藥으로 수재된 것에는 肝中風(天雄散), 腎中風(天雄散), 風口眼嘴斜(天雄散), 風癱癱(天雄散), 中風半身不遂(天雄丸), 風脚軟(天雄散, 天雄煎丸), 柔豐(天雄丸), 風角弓反張(天雄散), 急風(天雄丸), 風偏姑(天雄散), 中風四肢拘攣不得屈伸(天雄丸), 風痿癱癱(天雄丸), 大風癩病(天雄散), 歷節風(天雄散) 등이 있다. 天雄은 비록 下焦의 佐藥으로 쓰이지만 酒에는 升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酒를 이용하면 引藥上行할 수 있다. 그러므로 《雷公炮炙論》에 “咳逆數數, 酒服熟雄”라는 기록이 있으며, 淸의 《本草求真》에 “天雄性味辛熱. 辛熱走竄, 屬主治風寒濕痺之品”라 하였고, 《本經逢原》에 “天雄, 稟純陽之性, 補命門, 三焦, 壯陽精, 強腎氣”라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天雄의 임상응용은 전통의 炮制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5. 天雄과 附子

天雄과 附子は 모두 《神農本草經》의 下品에 수재되어 있다. 그 이후 종합 本草書인 唐의 《新修本草》, 宋의 《證類本草》, 明의 《本草品匯精要》와 《本草綱目》에서는 天雄과 附子は 두개의 다른 약으로 기록되어 있다. 《本草綱目》에서는¹⁷ “天雄乃種附子而生出或變出, 其形長而不生子, 故曰天雄”라 하였고 “天雄有二種: 一種是蜀人種附子而出生長者, 或種附子而盡變成長者... 一種是他處草烏頭之類, 自生成者”과 “初種爲烏頭, 象烏之頭也. 附烏頭子而出生者爲附子, 如子附母也. 烏頭如而芋魁, 附子如芋也.”라 하였다. 《本草經集注》에는¹ “天雄似附

子而, 細而長便是, 長者乃至三四寸許”라 하였고, “烏頭與附子同根”라 하였다. 《本草別說》에서는 “天雄者, 始種烏而不生諸附子, 側子之類, 經年獨生長大者是也”라 하였다. 附子は 《東醫寶鑑》에¹⁷ “附子에는 오두, 오취, 천웅, 측자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附子の 종류로, 그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모양이 까마귀 대가리 같이 생긴 것을 오두(烏頭), 附子の 머리가 두 갈래로 된 것을 오취(烏喙), 가늘고 길이가 3-4치 되는 것을 천웅(天雄)이라 하며, 뿌리 곁에 토란과 같이 붙어있는 것을 附子라 한다. 곁에 연달아 토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측자(側子)라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 모두 附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초 고증을 한 결과 天雄은 *Aconitum carmichaeli* Debx의 側根으로 밝혀졌다. 즉 附子와 기원이 같은 川烏頭와 草烏頭에서 형체가 긴 것을 의미한다(烏頭는 主根이고, 附子は 側根이다). 天雄은 금세기 30년대 이후 모 지방에서 습관적으로 불리는 이름이었다. 예를 들면 廣東에서는 炮附子가 炮天雄으로 불리며, 陳仁山의 《藥物出產辨》에서는¹² “附子가 四川에 六月이면 새것이 나오는데 이를 天雄”이라 하였다. 50년대 《廣東中藥研究所藥物炮制學筆記》중에서 당시 일종의 火炮天雄이 《藥物出產辨》의 炮附子와 같은 것이었다.

현재 홍콩시장에서 天雄과 附子は 특별한 구별이 없다. 즉 天雄은 附子の 약재상품 규격으로 되어있고 生天雄은 膽巴水처리한 淡附子이며, 炮天雄은 生天雄을 고온처리한 炮附子이다. 兩者는 성상, 기능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仲景炮附子は 국내에 研制되지만 그 생산품은 홍콩시장의 것과는 다르다. 홍콩시장에서는 “火炮天

雄”“淨炮天雄”이라 불리며, 처방의 역사도 길다.

6. 烏頭와 附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烏頭와 附子は 原根植物이 동일종이며 主根을 烏頭라하고, 側根을 附子라 한다. 側子를 李時珍은 “生于附子之側,故名”라 하였고¹⁴, 《廣雅疏證》에서 “側與莢同”, “卽子與莢子同”라 하였고, 《御覽》은 《神農本草》를 인용하여 “正作莢”이라 하였다. 側子の 이름은 《吳普本草》에서¹⁹ “是附子角之大者”라 처음 기재되었으며 《雷公炮炙論》에서 “側子只是附子傍有小顆附子如棗核者是”라 하여 이 후 본초가들은 모두 이 설을 믿어 왔으나 《神修本草》에서는 “側子,只是烏頭下共附子,天雄同生小者,側子與附子皆非正生,謂從烏頭傍出者,以小者爲側子,大者爲附子,令稱附子角爲側子,以必不然”라 하여 역대 本草書 중에서 말한 側子는 附子之角 이외에 附子之小子까지도 側子로 포함한다고 하였다.

7. 炮제법의 내용

(1) 天雄

《雷公炮炙論》에는 “宜炮皴坼去皮尖底用,不然陰制用并得”, 《藥性論》에는 “凡丸,散炮去皮臍用,飲藥卽和皮生使甚佳”, 《本草綱目》에는¹⁹ “熟用.一法,每十兩,以酒浸七日,掘土坑,用炭半秤煨赤,去火,以醋二升沃之,候乾,趁熟入天雄在內,小盆合一液,取出,去臍用之”라 기재되어 있다.

(2) 淡附子

《雷公炮炙論》에는¹⁹ “若陰制使,卽生去尖底,薄切,用東流水并黑豆浸五日夜,然後瀝

出,于日中曬令乾用”, 《三因方》에는¹⁹ “去皮臍,黑豆半斤,入瓷瓶內慢火煮,以附子爛爲度”, 《景岳全書》에는¹⁹ “用甘草不拘,大約酌附子多寡,而用甘草煎極濃湯,先浸數日,剝去皮臍,切爲四塊,又添濃甘草湯再浸二三日,捻之軟透,乃咀爲片,入鍋內文火炒至將乾,庶得生熟勻等,口嚼尙有辣味是其度也”라 기재되어 있다.

(3) 炮附子

《金匱玉函經》에는¹⁹ “炮去皮,破八片”, 《雷公炮炙論》에는¹⁹ “修治十兩,文武火中炮令皴坼者去之,用刀刮(去)上孕子,并去底尖,微細劈破,于屋下平地上掘一坑可深一尺,安于中一宿.至明取出,焙乾用,夫欲炮者,灰火勿用雜木火,只用柳木最妙”, 《本草經集注》에는¹ “凡用三建(附子,烏頭,天雄),皆熱灰微炮令坼,勿過焦”라 기재되어 있다.

Ⅲ. 討 論

附子는 독이 있으며, 병을 능히 치료한다. 특히 오래되고 치료하기 힘든 병들을 치유한다. 이러한 효과로 2000여년 이상 꾸준히 약효를 인정받고 있으며 고급의 명의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附子の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사용으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 병을 잘 치료하기 바란다.

1. 적응증의 선택

附子는 辛熱燥烈하기에 陽氣를 능히 복돋운다. 亡陽欲脫의 危急證과 일체의 陽虛陰寒證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용량의 결정

“中醫不傳之秘在用量上” 용량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3-10g으로 되어 있는데, 대용량을 사용하여 임상에서 큰 효험을 본 사람이 적지 않다. 附子는 《東醫寶鑑》에 보면¹⁷ “작은 것은 藥力이 약하고, 큰 것은 성질이 사납기때문에, 五錢(20g)쯤 되는 것이 좋다. 고방에 큰 附子로서 무게가 一兩(40g)인 것을 쓰면 그 藥力이 크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云南의 吳佩衡은²⁰ “상용 용량을 30-50g”으로하여 사용하였고, 江西의 周嘉善은²¹ “附子를 30-45g의 대용량으로 사용하여 頑固한 寒濕痺痛과 陽虛證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附子 중독의 원인은 용량이 아니라 인체가 약물에 나타나는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고²² 주장하였다. 許信國은 “포附子の 용량이 10-15g의 상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진단이 확실히 虛寒의 “附子證”이면 용량을 30-60g으로 증량하라”고²³ 하였다. 반면에 岳美中은 임상에서 “허한성 만성 질환 치료 시 炮附子를 1.5-3g만 써도 효과가 있으며 진통작용은 6-9g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²⁴ 하였다. 상기 설명과 같이 附子의 사용 용량과 임상 체득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3-10g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용량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조금씩 용량을 올려 가는데 용량이 많아질 때는 반드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生熟附子の 적당한 사용

張仲景은 《傷寒論》에서 回陽救逆에는 生附子를, 痛痺止痛에는 炮附子를 사용하였다. 근대 모 연구자는 回陽救逆에는 炮

附子를, 痛痺止痛에는 生附子를 사용하였는데²⁵ 이것은 현대 약리학연구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4. 煎煮用法을 이해

역대 本草書에서 내복은 반드시 포제하고 久煎하라 하였는데, 만약, 久煎을 과도하게 하면 약효 성분이 과다 상실되어 약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楊 등은²⁶ 制附子 소용량(15-20g)내복 시는 先煎, 久煎이 필요 없으며 다른 약과 같이 달여 30분 정도면 적절하며 중독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대용량일 때는 적당한 先煎, 久煎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參 考 文 獻

1. 馬繼興,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p.33-334
2. 張鏡湖, 實用中藥炮制, 廣東科學技術出版社. 1993年 p.157
3. 姚景南 等, 中藥的炮制, 廣東科學技術出版社. 1984年 p.57
4. 山東省衛生廳, 山東省中藥炮制規範,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p.55
5.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卷上, 人民衛生出版社. 1963年 p.19
6. 陶弘景, 本草經輯注, 卷1, 人民衛生出版社. 1994年 p.48
7. 李中梓 編輯, 雷公炮制藥性解,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年 p.78-80
8.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p.244
9. 許洪, 太平惠民和劑局方·指南總論, 人民衛生出版社. 1985年 p.427
10. 編纂人未詳, 小兒衛生總微論, 人民衛生出版社. 1990年 p.129
11. 王袞, 博濟方, 人民衛生出版社. 1956年 p.43
12. 陳仁山, 藥物出產辨, 新醫藥出版社. 1977年 : 2
13. 廣東中藥研究所, 廣東中藥研究所藥物炮制學筆記, 廣東中藥研究所印刷廠. 1995年: 11
14. 李時珍 著,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p.1174-76
15. 朱丹亨 撰,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p.200
16. 王燾 撰,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1996年 p.428
17. 郭靄春等 校注. 東醫寶鑑,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年 1月第一次印刷. p.904-905
18. 張介賓 著,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1991年 6月第一次印刷. p.1201
19.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錄委》著, 中華本草, 中華本草3.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年 9月一次印刷. p.3·1714, 3·1715, 3·1716, 3·1717
20. 帥燾 等, 雲南中醫雜誌, 1982年 (5), 1
21. 周嘉善, 江西中醫藥, 1983年 (2), 46
22. 何永田, 浙江中醫雜誌, 1982年 (2), 87
23. 許信國, 北京中醫, 1986年 (3), 33
24. 中醫研究院, 岳美中論文集, 第1版, 1978年 147
25.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上冊), 上海人民出版社, 1977年 229
26. 楊德全, 中醫雜誌, 1985年 (12), 74